관광 인프라 늘리고 국제대회 레거시 사업 속도 내야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

〈3〉 '국제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 높여야

'빛고을 광주'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두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비용으로도 훌륭한 시설과 원할한 경기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성공대회로 이끌었고, 맛과 멋·흥의 남도문화가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 속에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광주는 2025년 세계양궁대회를 개최하고,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와 함께 공동 개최에 나서면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돈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관광 인프라와 U대회와 세계수영대회의 레거시(legacy)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

U대회·세계수영대회 성공 국제 스포츠도시로 발돋움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산 활용 경쟁력 높이고 브랜드 만들어야 다양한 종목 국내·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인프라 활용도 높여야

그 지저되다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고, 경쟁력 업그레이드 해야=한반도 남단의 작은 도시 광주는 두 국제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했다. 대회 기간 중 광주만의 맛과 멋, 흥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면서 광주만의 도 시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특히 남도음식과 전통시장, 소쇄원 등 고품격 문화관광 자원, 국립 5·18 민주묘지 등의 민주·인권유산은 U대회와 수영대회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입증했다. 한 도시의 고유한 역사적·사회적 자산과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브랜드를 도시브랜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광주는 이 같은 국제대회를 통해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성숙한시민의식까지 긍정적이미지를 전세계인들에게 심어주면서 도시 브랜드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빛고을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자산을 향상시 켜 꾸준하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광주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인프라 확대·레거시(legacy)사업 속도 높여야=국제 대회 성공 개최는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리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대회 기간 중 단발성 효과를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 한 대회 유산을 남겨야 이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 광주시도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무형 유산남기기 사업에 나름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화이다

광주U대회 레거시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 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UN-광주유니 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U대회 선수촌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이 8년째 이어지면서 U대회 이후 지역 스포츠산업활성화를 위한 추진하려했던 레거시 사 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송이 마무 리되더라도 U대회 잔여재산 분배를 놓고 광주시와 문화체육부 간 줄다리기가 예고되어 있어 장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영대회와 관련한 레거시 사업도 '수영 불모지' 인 한국에서 수영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광주수영진 흥센터 건립과 매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광주 국 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레거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스포츠 이벤트 레거시와 제반여건 등을 연계한 레거시, 지 속가능한 레거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가동해 야 한다. 여기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 근거와 당위성도 극대화될 수 있 다. 또한, 유형적 자산을 활용해서는 타 지역과 외 국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광주를 찾게 하고, 다 양한 종목의 국내·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활용도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를 반 영하듯 광주시는 2025년 세계양궁대회를 유치하 고,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대구와 공동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광주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 를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과제는 남아있다. '아시아 문화수도'로 불리는 광주에 특급호텔이 여 전히 전무하고, 특별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5만4000톤급 유조선 명명식이 21일 오전 해남 화원면 대한조선에서 열린 가운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대한조선 정대성 대표, 차코스에너지 내비게이션 니콜라스 차코스 대표,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박은 포르투(PORTO)로 이름 붙였으며 오는 30일 그리스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한조선 대불산단서 15만t급 유조선 명명식

30일 포르투갈 차코스사에 인도

영암 대불산단 대한조선이 21일 그리스 '차코스에너지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15만 4000t급 유조선의 명명식을 열었다. 이날 대한조선 건조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니콜라스 차코스 '차코스에너지 내비게이션' 대표와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 임수석 전 그리스대사, 성용욱 목포세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PORTO(포르투)'로 정해졌다. 포 루투는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선박을 임대 운영할 회사가 포르투갈에 소재함에 따라 포 르투갈의 매력적 항구도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 다. 선박은 오는 30일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한조선은 지난 2020년 6월 차코스 에너지 내 비게이션으로부터 9500만 달러 규모 15만4000t급 셔틀탱커 건조사업을 수주해 올해 건조를 마쳤다. 셔틀탱커는 해상에서 생산된 원유를 선적해 육상의 석유기지로 운송하기 위한 유조선이다. 계류장치 없이 해상에서 유류를 선적·하역할 수 있다.

차코스 에너지 내비게이션은 그리스 3위 해운사다. 현재 탱커 52척, 케미컬 18척, 컨테이너 12척등 총 100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세계 1위 해운국가 그리스의 우수 선사와 세계 1위 조선 국가 한국, 특히 전남의 기술력 높은 조선사가 우호와 협력을 이어나가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필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수위에 정책 제안 쏟아진다

의사회·청소년 연대 등 제안

민선 8기 광주시 인수위원회에 지역사회 곳곳 에서 정책 제안이 쏟아지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21일 인수위측에 광주시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구축, 제대로 된 광주시의료원 만들기, 보건의료 조직 확충,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건강한 광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사회는 "광주시는 공공보건의료의 모든역량을 한데 모으고 이끌 수 있도록 공공의료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기본절차인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위원회 인선을 마친 상태"라면서 "위원 면면을 봤을때도 일을 하기보단구색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부산시 등 타지역처럼 실제 일할 수 있는 보건현장 인력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역 청소년시설·기관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연대도 민선 8기 인수위측에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과제 실천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연대는 "광주시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청소년 현장과의 수차례 소통·협의를 통해 마련한 15개 아동청소년정책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며, 이를위한 청소년과 신설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 관련 단체도 목소리를 냈다. 광주지역 복지연합단체인 광주복지연대는 지난 16일 민선 8기 정책제안서를 통해 "강기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안한 5대 온종일 돌봄 책임제를 비롯해 10개 분야 80여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이들 공약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대표 누각 희경루 중건 모습 공개

23일 상량 고유제…10월 완공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해 다시 지어 진 조선 시대 목조 건축물 희경루(喜慶樓)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사직동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상량 고유제'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 건축물 골격을 완성하는 상량(上樑)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희경루는 1451년 지어졌으며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누마루

집 등을 갖췄다

1533년 화재로 소실돼 이듬해 다시 지어졌지 만 1866년 이후 다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시대에는 지금의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인근에 있었지만 이번에 광주공원으로 옮기게 됐 다. 희경루 건축은 복원이 아닌 옛 문헌 등을 토 대로 다른 곳에 새롭게 짓는 중건(重建)으로 불 린다. 광주시는 조선 명종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 되는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회도' (榜會圖)를 바탕으로 옛 모습을 되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매장 → 매장 매장 → 봉안 매장 → 수목장

오랜경험과 노하우! 탁월한 기술력과 정직한 가격! 광주, 전남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이장고민 해결!

묘지이장/ 관리 전문업체

"날짜 택일에서 화장장 예약, 안치까지,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삸의 마침로





어름철 비수기 특별할인! <mark>공수묘업</mark> © 010-8674-1037